

우리의 태풍 예보 기술, 동남아 재난 대응 지원

- 라오스 태풍 감시 및 예측 통합체계(플랫폼) 구축 사업 공여식 개최

기상청은 12월 14일(목) 라오스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태풍 감시 및 예측 통합체계(플랫폼) 구축 사업’의 공여식을 라오스 기상청(비엔티안)에서 개최하였다.

‘태풍 감시 및 예측 통합체계(플랫폼) 구축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날로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등을 조기에 감시하고 예보할 수 있는 장비와 활용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2020년부터 지난 4년간 수행하여 올해 완료된다.

기상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서 운영 중인 태풍현업시스템(TOS, Typhoon Operation System)과 우리나라 천리안위성 2에이(A)호의 위성영상 수신·분석 시스템을 라오스 기상청에 구축하고, 실습 중심의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지원하였다.

이번 공여식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 장동언 차장과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가 참석하였으며, 라오스에서는 우턴 팻루앙씨(Outhone PHETLUANGSY) 기상청장, 아농쎌 폼마짠(Anongsone PHOMMACHANH) 천연자원환경부 내각책임관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행사에서는 공여된 장비에 대한 공여증서 서명식에 이어, 구축된 장비의 발전적인 활용 및 역량 향상 방안 논의와 태풍 예보 사례 발표 등 공적개발원조(ODA)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장동언 차장은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로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에 취약한 국가의 재난 대응을 지원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상 기술 전수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붙임 공여식 개최 사진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마승완 (042-481-7320)
		담당자	사무관	손성화 (042-481-7319)





| 라오스 태풍 감시 및 예측 통합플랫폼 구축 ODA 사업 공여식 개최(12.14.) |